

중국 물류 리포트

CHINA LOGISTICS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國 上海市 長寧區 遵義路 100號 虹橋上海城 A-1504

Tel.+86-21-6090-0395~6, Fax.+86-21-6090-0397

제12-3호

2012년 3월 30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 대외무역 vs. 내수

- ▶ 중국 물류 포커스
: '양회(两会)'로 본 2012년 중국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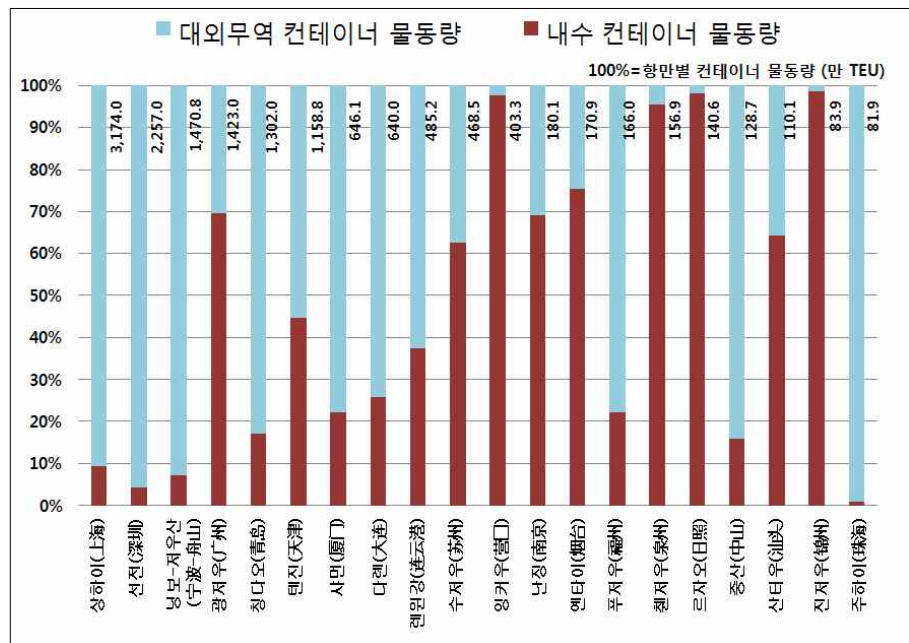
- ▶ 중국 물류 동향

■ 2011년 20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만 TEU, %)

	항구	물동량	증가율
1	상하이	3,174.0	9.2
2	선전	2,257.0	0.3
3	닝보-저우산 (宁波-舟山)	1,470.8	11.9
4	광저우	1,423.0	13.4
5	칭다오	1,302.0	8.4
6	톈진	1,158.8	14.8
7	샤먼	646.1	10.9
8	다롄	640.0	21.7
9	렌원강	485.2	25.3
10	수저우	468.5	28.6
11	잉커우	403.3	20.8
12	난징	180.1	23.9
13	옌타이	170.9	10.9
14	푸저우	166.0	12.8
15	첸저우	156.9	14.6
16	르자오	140.6	32.5
17	중산	128.7	2.9
18	산터우	110.1	18.0
19	진저우	83.9	11.1
20	주하이	81.9	17.8

자료 : 『中国港口』, 2012.02.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 대외무역 vs. 내수



자료 : 『中国港口』, 2012.02 ; KMI 작성.

2011년 중국 내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두드러져

2011년 중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한 약 1억 6,300만 TEUs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컨테이너 항만들의 물동량은 1억 4,647.8만 TEUs로 중국 전체의 89.9% 차지했고, 2010년 92.8%에 비해 다소 하락해 중소형 항만들의 물동량 증가를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내수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인데, 2010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 1,700만 TEUs 중 내수 컨테이너의 비중이 약 절반인 48.5%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중국 20대 항만의 내수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은 선전, 산터우, 옌타이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특히, 환발해만 항만들의 내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폭이 두드러졌고, 2011년 환발해만 항만들의 내수 컨테이너 비중은 42.3%로 주삼각지역(29.0%), 장삼각지역(26.7%) 항만들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중 내수 컨테이너의 비중은 약 28.7%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 대외무역 vs. 내수
- ▶ 중국 물류 포커스
 - : '양회(两会)'로 본 2012년 중국물류
- ▶ 중국 물류 동향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03-23	03-30
종합지수	1,072.86	1,135.11
일본 향로	801.31	815.31
구주 향로	1,320.33	1,517.65
미서부 향로	960.61	956.29
미동부 향로	1,180.17	1,176.92
한국 향로	613.86	640.22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3-23	03-30
종합지수	1,249.60	1,242.87
석탄	1,392.17	1,379.54
곡물	875.53	962.71
금속광석	1,057.38	1,039.87
정유	1,345.48	1,345.48
원유	1,597.13	1,597.14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중국 물류포커스 : '양회(两会)'로 본 2012년 중국물류

1 '물류', 2012년 양회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

3월 14일 폐막된 2012년 양회(两会)는 올 하반기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 대회(전당대회)'를 통한 5세대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개최된 관계로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보시라이(薄熙来) 전 충칭시 서기의 퇴진 및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년 만에 8% 이하(7.5%)로 책정하는 등 굵직한 이슈들로 이전 양회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물류'가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올라 물류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회를 통해 접수된 489건의 의안(议案)과 6,069건 제안(提案)¹⁾ 중 물류관련 안건은 240건을 초과했다. 또한 2012년 『정부공작보고』에서는 2011년에 언급되지 않았던 '물류(物流)'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유통(流通)'도 이례적으로 무려 10차례나 언급되어(2011년 2회, 2010년 1회 언급) 중국 정부의 물류·유통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내수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2012년 『정부공작보고』의 주요임무 중 내수확대의 일환으로 “온라인 쇼핑 등 신흥소비방식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킴”을 표명하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부총리도 “온라인 쇼핑 등 신흥소비방식 발전을 통해 유통원가 절감”을 역설하며, 『12·5계획』기간의 전략산업으로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또한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쉬샤오란(徐晓兰) 부원장은 『전자상거래촉진법』의안을 제출하며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자상거래촉진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 통일되지 못한 정책 및 행정관리의 복잡한 구조를 해결해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는 기초법안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연계하여, 국가우정국 마쥔성(马军胜) 국장은 “현재 70% 이상의 온라인 쇼핑이 택배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와 택배업 간의 효과적인 연계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부처들은 더 많은 사회 자본이 택배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하고, 전자상거래플랫폼과 택배플랫폼 시스템 표준화 및 신용 메커니즘 구축을 촉구함으로써, 향후 택배업과 전자상거래의 융합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1) 의안(议案)은 일반적으로 인민대표대회에서의 안건, 제안(提案)은 정치협상회의의 안건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안건을 제기하는 주체 및 수속절차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임. 통상적으로 '인대의안(人大议案)', '정협제안(政协提案)'으로 지칭.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 대외무역 vs. 내수
- ▶ 중국 물류 포커스
 - '양회(两会)'로 본 2012년 중국물류
- ▶ 중국 물류 동향

■ 2012년 양회 물류관련 주요 논의 동향 (1~4)

1. 『해운업진흥계획』 제정 제기

전국정치협상회의의 위원이자 차이나쉬핑그룹 회장인 리샤오더(李紹德)는 현재 해운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해운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데 비해 중국의 해운정책은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역설하며, 『해운업진흥계획』의 시행과 『항운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국은 2009년 이후 10대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해운산업 진흥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며, 현행중인 해운관련 법률은 『해상법』, 『항상교통안전법』, 『항구법』이 있다.

2. 친환경 물류에 대한 관심 증대

3월 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핑 주임에 이어 환경보호부 저우생셴(周生贤) 부장도 대기오염 억제 계획 미달성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환경보호가 중국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친환경 물류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었다.

잉커우항무그룹의 까오바오위(高宝玉) 총재는 양회에서 친환경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를 물류기업의 친환경 차량 이용과 화물 창고에 환경설비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도 차이나모바일 광둥지사 쉬룽(徐龙) 총경리, 쑤닝전기(苏宁电器) 장진동(张近东) 회장 등도 『전자결제법』의 제정 및 ‘전자상거래시장 관련 법률제도 규범화’를 건의하고 나서며, 제도화를 통한 전자상거래시장과 택배시장의 통합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3. 물가안정 방안으로 ‘물류비 절감’ 을 강조

3월 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핑(张平) 주임은 2011년 과도한 물가상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이는 2011년 물가상승을 4.0%대로 억제하겠다는 계획 실패에 대한 반성이며, 중국 정부의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2년 『정부공작보고』에서도 CPI 상승을 4.0%대로 억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중국 정부는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주목할 것은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방안으로 물류비 절감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물가안정 방안으로 ① 유통 활성화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유통단계 축소, ② 유통체계 개혁 심화 및 물류기업의 영업세 차액납세 시범범위 확대, ③ 대량상품의 저장시설용지에 대한 세수정책 개선, ④ 교통운수 부문의 무분별한 요금징수와 벌금부과 개선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상무부 천더밍(陈德铭) 부장도 2010~2011년 중국의 물류원가(사회물류총비용)가 GDP의 약 18%를 차지해 대부분 선진국들의 8~10% 비중보다 월등히 높음을 지적하면서, 만약 현대적 물류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중국은 유통영역에서 약 절반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양회 이후, 국무원의 주도로 ‘전국유통공작회의’가 개최될 계획이며, 현재 16개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유통원가 등 조사를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4. 증치세 개혁 논의와 시범실시 확대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시범 시행된 ‘증치세 개혁’은 이번 양회까지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상하이의 증치세 시범실시 후 성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재정부분의 혼란 및 증치세 영수증 공제 기준 등 아직 검토사항이 많음을 우려했다. 한편, 2012년 『정부공작보고』의 세계개혁내용에서 ‘구조적인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지역 확대를 강조했고, 양회에 참가한 광둥, 저장, 지린성 등 많은 지역 대표들 역시 증치세 개혁 시행에 찬성하는 등 2012년 증치세 개혁 시범실시 지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²⁾. 베이징 역시 올 7월 1일부터 증치세 개혁이 시범 실시된다.

2) 상하이시 시장 한정(韩正)은 양회기간 중 “상하이에서 1차적으로 증치세 개혁에 참여한 12만 개 기업 중 약 65%가 중소형 기업이며,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감세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며 증치세 개혁 시범지역 확대에 힘을 실음.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 대외무역 vs. 내수
- ▶ 중국 물류 포커스
 - : '양회(两会)'로 본 2012년 중국물류
- ▶ 중국 물류 동향

■ 2012년 양회 물류관련 주요 논의 동향 (1~4)

3. 콜드체인물류 정책지원 강화

중바이(中百)그룹의 왕아이현(王爱群) 회장은 농산물 물류원가는 현대적인 콜드체인물류체계 구축에 달렸으며, 정부의 콜드체인물류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정부공작보고에서도 농산물 전문운송통로(녹색통로)구축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4. 정저우(郑州) 내륙형 현대물류 중심건설 지지 호소

허난성 교통운수청 휘진화(霍金花) 부청장은 정저우의 내륙형 현대물류중심으로 건설하기 위해 각 부처에 지지 강화를 호소했다.

주요 건의 내용에는 ▲전국적인 택배물 집하센터, 냉장물류기지, 농산물 보세물류교역단지, 면화, 석탄 등 중요화물 저장기지 건설 지지 ▲정저우 철도 컨테이너 데포 2기 건설 ▲정저우 공항의 화물운송집하구역 건설 ▲국내외 화물항공회사의 진입규제 완화 ▲국내항공화물노선과 항편, 화물운송기 등 방면의 규제 완화 ▲항공사의 자회사 설립 및 노선, 창고 구축 지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5 양회 이후 정책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 필요

이번 양회는 중국 지도부 및 각계 인사들의 물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안건들이 쏟아짐으로써 중국 물류산업의 현실 문제와 미래 발전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우리 기업들에게도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물류관련 세금정책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실리를 취해야 한다. 현재 상하이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영업세-증치세 개혁'이 향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우리 물류기업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증치세 개혁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양회에서 언급된 창고용지, 도로통행료 및 과태료 제도개선 등의 적용범위 및 혜택 등을 이해함으로써 지원정책을 최대한 향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의약품 물류 등 보다 전문화된 물류영역에 관심을 가져 틈새시장 진입을 노려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택배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전하향(家电下乡)'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정부공작보고』에서도 '도시-농촌간 유통체계 및 도로정비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중국 농촌지역 물류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친환경 물류에 대한 관심과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되는 친환경 물류기술관련 한중협력사업 발굴 및 중국 진출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2012년 양회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더욱 구체화된 정책들이 발표될 것이다. 4월에 개최 예정된 '전국유통공작회의'는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물류분야의 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번 양회는 올 가을 새롭게 출범될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물류관련분야 국정운영방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기에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세원 연구원 · 김은수 전문연구원
kmishanghai@gmail.com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 대외무역 vs. 내수
- ▶ 중국 물류 포커스
: '양회(两会)'로 본 2012년 중국물류
- ▶ 중국 물류 동향

중국 물류 동향

경제 · 정책

- 중국 철광석 현물거래 플랫폼, 올 5월 8일 정식 운영
- 「석탄공업발전 “12·5” 계획」 발표, 2015년 중국석탄생산량 41억 톤 전망
- 「해양플랜트 제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 국무원, 「“12·5” 종합교통운수체계계획」 통과
- 국무원, 「동북진흥 “12·5”계획」 승인
- 「신소재 “12·5”계획」 발표, 희토류 관련 소재 중점발전 전망
- 공업정보화부, 「전자상거래 “12·5” 발전 계획」 발표
- “12·5” 서비스산업 발전계획 발표 예정
- 중국 “12·5” 기간 셰일가스(shale gas) 생산 65억 m³ 계획
- 중국 “12·5” 말, 국가 신형 공업화산업 시범 기지 약 300개 조성 전망
- 장쑤성, 2011년 특색산업 클러스터 영업 수익 1조 위안 돌파
- 중국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폭 매년 확대
- 중국 휘발유 · 경유 ㄹ당 8위안 시대 진입

해운 · 항만

- COSCO, 세계 4위 컨테이너 정기선사로 등극
- 중국 올 1~2월 중국 항만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 12%
- 후난(湖南)성~홍콩 컨테이너 항로 3월말 정식 개통

- 난징항, 중국 최초 내수 냉장컨테이너 운송 시작
- 샤먼 하이창(海沧)보세항구 2기 정식 가동
- 하이커우(海口)시, 4대 항구기능 지속 개선
- 푸저우(福州)항 30만 톤급 화물선 기항, 심수항만으로 부상
- 교통운수부, 해운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 구상
- 산샤(三峡) 남부 수문 보수공사 완료, 26일부터 통행 재개
- 렌원강 간위(赣榆)항구 1기 공정 착공

종합 물류

- 쓰촨(四川)성, 중국 최초 약품 3자 물류 실시
- 도로 · 교량 통행료, 운수기업 원가의 34% 차지
- 2011년 중국 컨테이너 운송의 4대 특징
- 산둥성, 올해 교통운수사업에 580억 위안 투자 계획
- 수저우(苏州), 올해 물류 부가가치 170억 위안 이상 전망
- 중국 1~2월 사회물류총액 23.5조 위안, 동기대비 10.6% 증가
- 올해 9개 항공회사 칭하이(青海)성 항공시장 진입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